

장인정신·기술혁명의 만남... ‘럭셔리’의 끝을 달린다



‘노빌레 에디션’ 쿼트로포르테



제냐 펠레테스타 에디션 르반떼S 그란스포츠



쿼트로포르테 노빌레 에디션 센터콘솔



르반떼 노빌레 에디션 휠



삼성전자 ‘세프컬렉션 마레 블루’ 냉장고 추천 증명

간혹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레 눈이 가는, 시선을 끄는 사람들이 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화려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후광’이 느껴지는, 엔진 소리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 수 있는 차. 이탈리아 럭셔리 마세라티는 이태리 신사복처럼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제작하는 시트커버와 전설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도 반하게 만들었을 정도의 완벽한 배기음, 포세이돈을 상징하는 삼지창 모양의 엠블럼으로 알려져있다.

1914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마세라티 가문이 창설한 뒤 100년이 넘는 역사를 품은 마세라티는 그야말로 ‘자동차계의 명품’으로 꼽힌다. 매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한정판 에디션’을 선보이는 마세라티는 최근 이태리 남성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네질도 제냐’와 협업으로 ‘에르메네질도 제냐 펠레테스타 에디션’과 함께 품격을 갖춘 ‘노빌레 에디션’을 선보이는 등 한정판 모델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럭서리의 끝판왕·명품과 명품의 완벽한 조합=장인정신, 기술혁명, 그리고 특별함의 완벽한 조합.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자동차계의 거장 마세라티와 명품 남성 브랜드 에르메네질도 제냐가 손을 맞잡았다. 이들이 최근 선보인 한정판 에디션 ‘마세라티 에르메네질도 제냐 펠레테스타’는 감탄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인테리어 디자인 소재의 이름을 딴 ‘펠레테스타’는 ‘잘 짜인 가죽’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다. 그 이름에 걸맞게 제냐 펠레테스타 에디션은 정교한 직조가 돋보이는 내장 가죽 시트에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고품격 경량 나파 가죽으로 이뤄진 펠레테스타는 특수한 설계 및 정교한 마감을 통해 제작된 가죽이 사용됐다. 얇은 나파 가죽 스트립을 교차 직조해 재탄생시킨 획기적인 소재다.

특히 제냐 펠레테스타 에디션을 구입할 경우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숙련된 테일러링 장인들이 고객의 체형과 스타일을 반영해 제작하는 럭셔리 맞춤 ‘수 미주라’ 서비스의 셔츠 바우처도 제공한다.

국내 20대 한정 판매되는 이번 에디션은 ‘르반떼 S 그란스포츠’와 ‘쿼트로포르테 S Q4그란루쏘’ 두 가지 모델로 제공된다.

고급스러운 브론즈 색상이 3중으로 코팅된 외관을 자랑하는 르반떼 S그란스포츠 펠레테스타 에디션은 펠레



매년 명품 브랜드와 협업해 한정판 출시
남성 브랜드 에리메네질도 제냐와 제휴
내·외장 디자인·첨단 사양 ‘넘사벽’

‘제냐 펠레테스타-노빌레’ 에디션
총 4가지 모델 국내 45대 한정 판매

명품 가죽시트, 안전시스템·오디오 탑재
삼성전자 럭셔리 냉장고와 공동 프로모션

테스타 가죽이 대시보드, 시크한 블랙 컬러의 스포츠 시트, 도어 패널 등 실내 곳곳 곳곳 표면에 적용됐다.

이외에도 최상급 라디카 우드 트림, 강력한 ‘Bowers & Wilkins’ 오디오 시스템, 긴급제동 및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안전장치, 블랙 브레이크 캘리퍼와 짝을 이루는 21인치 고풍력 헬리오 림을 장착했다.

판매 가격은 1억9200만원이다.

쿼트로포르테 S Q4그란루쏘 펠레테스타 에디션은 르반떼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그윽하고 세련된 메탈릭 블루 외관 컬러와 블랙컬러와는 또 다른 매력을 뽐내는 다크 브라운 제냐 펠레테스타 가죽이 대시보드는 물론, 크래시 패드와 시트 등 실내 전반에 걸쳐 적용됐다. 블루 브레이크 캘리퍼와 짝을 이루는 20인치 페르세오 휠이 특징이다. 판매가격은 2억1400만원이다.

◇고귀함과 품격을 갖춘다=노빌레 에디션=마세라티가 르반떼와 쿼트로포르테 2개 모델로 새롭게 선보이는 ‘노빌레’ 에디션은 ‘고귀한, 품격 높음’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다. 푸른 지중해와 마세라티 전통의 강인함과 우아하고 기품을 강조하는 익스클루시브 컬러인 ‘블루 노빌레’를 통해 특유의 디자인이 더 돋보이는 것은 물론, 강

렬함까지 더해 곧 ‘달려 나갈 듯’ 한 강력한 퍼포먼스를 떠올리게 한다. 블루 노빌레 컬러 도장은 3중 코팅 처리돼 더 깊어진 색감과 빛의 광량에 따라 조금씩 다른 색채를 뽐내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실내에는 마세라티만을 위해 독점을 제작된 피에노피오레 천연가죽 소재를 적용한 탄 앤 블랙 두 톤 컬러의 시트와, 알칸타라 소재를 적용한 회색의 헤드라이너가 완벽한 균형으로 대비돼 고급 세단의 클래식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센터 콘솔과 스티어링 휠에 적용된 메탈 네트 하이글로시 트림(르반떼)과 로버스 우드 트림(쿼트로포르테)은 독특한 매력을 더하기 충분하다. 센터 콘솔 가운데 ‘40분의 1’ 기념 배지도 노빌레 에디션의 희소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25대 한정 판매되는 노빌레 에디션은 20인치 에페스토 플레티늄 휠을 적용한 350마력의 르반떼 그란루쏘(15대)와 20인치 페르세오 휠을 적용한 350마력의 쿼트로포르테 그란루쏘(10대) 두 가지 모델로 제공된다. 판매 가격은 르반떼 그란루쏘 노빌레 1억5440만원, 쿼트로포르테 그란루쏘 노빌레 1억7870만원이다.

특히 마세라티는 노빌레 에디션 출시를 기념해 삼성전자의 럭셔리 냉장고 ‘세프컬렉션’과 공동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메인 테마가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블루 컬러인 점과, 이탈리아 고유의 장인정신에서 탄생한 명품이라는 점도 협업 마케팅의 모티브가 됐다.

삼성전자 럭셔리 냉장고 ‘세프컬렉션’은 밀레니얼 감각의 명품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 5가지 도어패널을 선보였으며, 최상위 패널인 ‘마레 블루’는 마세라티의 외관 도장을 책임지고 있는 이탈리아 하이엔드 금속가공업체 ‘데 카스텔리’와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이탈리아 베니스의 바다를 모티브로 역동성과 평온함을 표현했으며, 모든 패널이 장인의 수작업을 통해 단 하나도 똑같은 패턴이 없이 제작되는 등 희소성을 더했다.

마세라티 전시장을 방문해 계약 및 출고(에디션 포함 전 모델 대상)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세프컬렉션 최상위 모델인 1200만원 상당의 ‘세프컬렉션 마레 블루’ 냉장고를 증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국 9개 마세라티 전시장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제로백 3.9초 ... 레이싱 혈통 최상급 슈퍼 SUV

‘르반떼 트로페오’

304km/h 최고 속도·사륜구동 시스템
통합 차체 컨트롤 주행 안정장치 도입
스포티한 외관에 힘·안전성 극대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상식을 과감히 깬 그야말로 ‘슈퍼 SUV’. 마세라티 르반떼 라인업의 최상급 ‘르반떼 트로페오’는 590hp의 V8 엔진을 장착, 시속 300km가 넘는 최고 속도로 고성능 SUV 세그먼트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

마세라티는 페라리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V8 엔진과 첨단 ‘Q4 사륜구동 시스템’을 결합했다. 또 통합 차체 컨트롤(IVC) 시스템을 채택했다. 전면에는 낮은 높이의 그릴로 새롭게 디자인한 스포츠 범퍼와 카본 파이버 소재의 악센트를 적용했고, 실내에 인체공학적으로 제작한 스포츠 시트는 최상급 ‘피에노 피오레’ 천연 가죽 마감으로 스포티함과 부드러운 감촉, 우아함까지 더했다.

르반떼 트로페오는 3.9초에 불과한 제로백과 304km/h의 최고 속도를 자랑한다. 특히 ‘코르사’ (Corsa) 주행

모드는 신속한 기어변속 속도, 낮은 에어 서스펜션 높이, 스카이크램핑, Q4 사륜구동 시스템을 최적으로 제어해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면서 안정성까지 보장한다. 지능형 ‘Q4 사륜구동 시스템’은 급커너링, 급가속, 날씨와 도로 상황에 따라 단 15분의 1초만에, 전·후륜 비율을 0대 100%에서 50대 50%로 전환한다.

르반떼 트로페오의 향상된 새시는 안전성을 극대화시키면서 놀라운 가속 성능을 발휘하고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함을 제공한다. 차량 전후 무게를 50대 50으로 완벽하게 배분할 뿐 아니라 동급 차량 대비 가장 낮은 무게 중심을 구현했다. 여기에 르반떼 GTS와 함께 마세라티 SUV 모델 최초로 통합 차체 컨트롤을 전자식 주행 안전 장치에 도입했다.

특히 새롭게 스타일링한 내·외관은 최상급 슈퍼 SUV에 걸맞은 ‘레이싱 혈통’을 잘 보여준다. 기능적 요소까지 겸비한 디자인은 그랜드투어러의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갖추면서도 공기 역학적 효율을 향상시켜 0.33의 공기저항 계수를 자랑한다. 외관은 ‘블랙 피아노’ 색상의 더블 수직바를 사용

한 전면 그릴로 공격적인 디자인에 초점을 맞췄고, 슈퍼카 특유의 낮은 그릴 아래에는 스포츠 범퍼가 3개의 독립된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을 채택했다.

내부 인테리어 역시 우아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남다른 품격을 갖췄다. 최상급 피에노 피오레 천연 가죽으로 마감된 스포츠 시트와 도어 패널은 더블 스티칭으로 고급스러움을 자아내고, 스포츠 풋 페달과 카본 파이버 소재를 사용한 기어시프트 패들은 마세라티만의 레이싱 DNA를 느낄 수 있게 한다. 판매 가격은 2억3200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